

2019국가직 7급 국어(가책형)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 1.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

- 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 ③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나라’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 ④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만 원이세요.”, “품질이십니다.”에서의 ‘-세요’, ‘-십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1)

- 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X) → ‘말씀’은 높임말도 되고 낮춤말도 되는 낱말이다.

◆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낮춤말)

◆ 할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모두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놓을게요.(높임말)

- ②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O)

◆ 당신: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 할머니는 뭐든지 당신 고집대로 하셨다. / 외할아버지는 당신 잡수시고 싶은 것은 당신께서 손수 만드셨지. /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 아버지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신다. / 선생님은 당신께서 직접 시를 써서 시집을 내는 것이 소원이셨다. >

③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나라'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X) → 우리나라

◆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는 가능하나 '나라와 거래'는 절대적인 대상이므로 절대 '저희 나라'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만 원이세요.", "품절이십니다." 에서의 '-세요', '-십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X) → 돈이나 상품을 높이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므로 "그건 만 원입니다.", "그건 품절입니다."처럼 사용하는 게 옳다.

정답: ②

문 2. 밑줄 친 부분이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2)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 한다. 파생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는데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②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
- ③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 ④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2)

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보다(동사) + 기(명사형 전성어미) → 보기(명사형 동사로 여전히 동사)

◆ 황금을 보기

목적어 서술어(동사)

②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 (O)

◆ 정(명사) + 답다(형용사형 접미사) → 정답다(형용사)

◆ 명사 '정'과 형용사형 접미사 '-답다'가 결합하여 형용사 '정답다'가 되어 품사가 바뀌었다.

③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 옥수수 알이 크다(동사) + 기(명사형 전성어미) → 크기(동사) < 동사 '크다'와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결합하였으나 여전히 서술성이 있는 동사이므로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④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 낚시(명사) + 질(명사화 접사) → 낚시질(여전히 명사)

정답: ②

문 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3)

애리조나주 북부의 나바호 인디언과 유럽계 미국인은 오랜 세월을 걸쳐 서로의 시간 개념을 적응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나바호인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다. 즉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 나바호 마을에서 성장한 나의 옛 친구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바호인은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기지. 그런데 만약 나바호인에게 ‘자네 지난 독립기념일에 플래그스태프에서 경주를 온통 휩쓸었던 내 말을 기억하지?’ 하고 물었을 때, ‘그럼, 기억하고말고.’ 하면서 그 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끄덕인다 해도 그에게 다시, ‘그 말을 다음 가을에 자네에게 주겠네.’ 하고 말하면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 버릴 것이네. 그러나 만약 ‘내가 방금 타고 온 저 비루먹은 말 알지 영양실조에다 안짱다리인 저 늙은 말을 해진 안장과 함께 자네에게 줄게. 저놈을 타고 가게나.’ 하고 말하면, 그 나바호인은 희색이 만연하여 악수를 청한 다음 자신의 새 말에 올라타서 사라질 것이네.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 ① 나바호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 ② 나바호인은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인식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나바호인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 ④ 나바호인은 기마민족으로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3)

- ① 나바호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X)

◆ 나바호인이 기억력이 좋다는 내용은 알 수 없다.

- ② 나바호인은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인식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X)

◆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로 보아 나바호인은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인식은 추론할 수 있으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은 알 수 없다.

- ③ 나바호인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O)

◆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로 보아 나바호인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④ 나바호인은 기마민족으로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 (X)

◆ ‘나바호인은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기지’로 보아 나바호인이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한 점은 추론할 수 있으나 기마민족인 점과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는 점은 추론할 수 없다.

정답: ③

문 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4)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질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엄마의 말은 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도 컴퓨터를 좀 쓰자는 제안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심부름을 해 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으러 나오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 ①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 ②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③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 ④ 발화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문자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4)

- ①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X)

◆ ‘~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로 보아 어감의 차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②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X)

◆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로 보아 억양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③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O)

◆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질책이 될 수 있다.’로 보아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 ④ 발화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문자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 (X)

◆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지 문자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정답: ③

문 5.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5)

경음화는 장애음 중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 | ㉡ | ㉢ | ㉤ |
|--------|------|-------|-----|
| ① 잡고 | 담고 | 갈 곳 | 하늘소 |
| ② 받고 | 앞더라 | 발전 | 물동이 |
| ③ 놓습니다 | 삶더라 | 열 군데 | 절정 |
| ④ 먹고 | 껴안더라 | 어찌할 바 | 결석 |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5)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ㅌ), ㅂ(ㅂ,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6장(경음화) 제23항)
-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6장(경음화) 제24항)
- ㉢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6장(경음화) 제27항)
-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6장(경음화) 제26항)
- ㉠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6장(경음화) 제28항)
- ㉡ ‘ㅎ(ㄴ, ㄹ)’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4장(받침의 발음) 제12항 [붙임2] 2.)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ㅌ), ㅂ(ㅂ,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4장(받침의 발음) 제18항)

- ① 잡고: ㉠ [잡따] (O)
담고: ㉡ [담따] (O)
갈 곳: ㉢ [갈곳] (O)
하늘소: ㉤이 아니라 ㉠이다.(㉠은 임의로 추가하였음)
- ② 받고: ㉠ [받꼬] (O)
앞더라: ㉡ [안따라] (O)
발전: ㉤이 아니라 ㉢이다. [발전]
물동이: ㉤이 아니라 ㉠이다.(㉠은 임의로 추가하였음)

- ③ 놓습니다: ㉠이 아니라 ㉡+㉢ (㉡, ㉢는 임의로 추가하였음) [놓습니다]
 삶더라: ㉠ (O) [삼:떠라]
 열 군데: '열(10)'은 아홉에 하나를 더한 수를 의미하는 수관형사로 ㉠이 아니다. [열:꾼데]
 절정: ㉡ (O) [절정]
- ④ 먹고: ㉠ (O) [먹꼬]
 꺼안더라: ㉠ (O) [꺼안떠라]
 어찌할 바: ㉡ (O) [어찌할빠]
 결석: ㉡ (O) [결씩]

정답: ④

문 6.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6)

- ①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② 그는 그들에 뒤지지 않는 근력을 길렀기에 메달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③ 자율 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④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발표 대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6)

- ①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X) → 가능한 한
 ◆ '가능한'은 형용사이므로 부사 '빨리'를 수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명사 '한'을 넣어 '가능한'이 '한'을 수식하게 해주어야 적절하다.
- ② 그는 그들에 뒤지지 않는 근력을 길렀기에 메달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X)
 → 그들에게
 ◆ '그들'은 유정명사이므로 '에'가 아니라 '에게'가 적절하다.
- ③ 자율 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O)
 ◆ 늘리다: 수나 분량, 시간 따위를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 '늘다'의 사동사.
 ● 늘이다: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 선 따위를 연장하여 계속 굿다.
- ④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발표 대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X) → 않은
 ◆ '않은, 않는'은 '아니하다'의 활용형으로 앞 용언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앞 용언이 동사이면 '않는'이 되고, 앞 용언이 형용사이면 '않은'이 된다.
 ◆ 체언 '효과적'과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형용사와 형태가 동일하여 '않은'이 옳다.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은'으로 써야 한다.

정답: ③

문 7. 밑줄 친 ‘가토리’와 ‘都沙工’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7)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뢰헤 매게 쫓 친 가토리 안과,
大川바다 한가온대 一千石시른 비 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도 근코 똥대도 것고 치도 싸지고 브 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게 쫓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나문디
四面이 거머어득 저뭇 天地寂寞 가치노을 썩는 디 水賊만난 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원 내 안히야 엇다가 ㄱ 을ㅎ리요.

- ① 孤子單身 ② 螳螂拒轍 ③ 磨杵作針 ④ 百尺竿頭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7)

< 사설시조 >

나모도 돌도 바히 업슨 뢰헤 매게 쫓 친 가토리 안과 < 나무도 돌도 바위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

大川바다 한가온대 一千石시른 비 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 대천바다 한 가운데 일천석이나 실은 배에 노도 있고 닛도 있고 >

농총도 근코 똥대도 것고 치도 싸 지고 브람 부러 물결치고 < 똥대의 줄도 끊고 똥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

안개 뒤섯거 쫓쫓진 날에 갈길은 千里萬리나문디 < 안개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았는데 >

四面이 거머어득 저뭇 天地寂寞 가치노을 썩는 디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 사방이 어둑어둑 저서 천지가 적막하고,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는데 해적 만난 도사공(백사공의 우두머리)의 마음과 >

엇그제 님 여원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ㅎ리요. < 엇그제 님을 여원 내 마음과 어떻게 비교하리오, >

* 주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임을 여원 슬픔

① 孤子單身(고혈단신): 孤(외로울 고) 子(외로울 혈) 單(홀 단) 身(몸 신)

1)의미: 피붙이가 전혀 없는 외로운 몸.

② 螳螂拒轍(당랑거철): 螳螂拒轍(당랑거철): 螳(사마귀 당) 螂(사마귀 랑(낭)) 拒(막을 거) 轍(바퀴 자국 철).

1)의미: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속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2)영어사전: It is like a fly trying to bite a tortoise (의미: 거북이를 무는 파리와 같다.)

*** 유의어**

1)螳螂之斧(당랑지부): 螳(사마귀 당) 螂(사마귀 랑(낭)) 之(갈 지) 斧(도끼 부)

③ 磨杵作針(마저작침): 磨(갈 마) 杵(공이 저) 作(지을 작) 針(바늘 침)

1)의미: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의미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9)

①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늘 고생이다. (→붓다) (O)

◆ 붓다: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 활용: 부어[부어], 부으니[부으니], 붓는[붓는] >

② 개울물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안 보인다. (→불다) (X) → 분다

◆ 분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 활용: 불어[부러, 불으니[부르니], 분는[분는] >

● 불다: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 < 활용: 불어[부러], 부니[부니], 부오[부:오] >

③ 은행에 부은 적금만도 벌써 천만 원이다. (→붓다) (O)

◆ 붓다: 불입금, 이자, 갯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 < 활용: 부어[부어], 부으니[부으니], 붓는[붓는] >

④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손과 발이 통통 불었다. (→분다) (O)

◆ 분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 활용: 불어[부러, 불으니[부르니], 분는[분는] >

정답: ②

문 10.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0)

①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매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② 신제품을 선뵈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③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야속터군요.

④ 그 발가숭이 몸통이가 위로 번쩍 쳐들렀다가 물속에 텀벙 쳐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10)

①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매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O)

◆ -으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

◆ 내가 해 준 요리를 그가 맛있게 먹으매 마음이 흡족했다. / 강이 깊으매 큰 고기가 살고 덕이 넓으매 인물이 모여드니라.

② 신제품을 선뵈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X) → 선뵈어도

◆ 선뵈다: '선보이다'의 준말. < 활용: 선뵈어[선:뵈어/선:뵈여], 선뵈[선:뵈], 선뵈니[선:뵈니/선:뵈니] >

③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야속터군요. (X) → 야속더군요

◆ 야속하다: 무정한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섭섭하게 여겨져 언짢다.

◆ 활용: 야속해, 야속하니, 야속다, 야속더군요

④ 그 발가숭이 몸통이가 위로 번쩍 쳐들렀다가 물속에 텀벙 쳐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X) → 쳐박히는

◆ 쳐박히다: '쳐박다'의 피동사

◆ 활용: 쳐박아, 쳐박으니, 쳐박는

정답: ①

문 11.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1)

기자: -----
 작가: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 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설이 아무리 허구적 장르라 해도 사실성에 근거해야 비로소 생동감과 개연성을 확보하기에 습작 시절부터 취재를 우선시켰지요. 전집에 실린 ○○기행, ○○를 찾아서 같은 단편들도 거의 취재를 통해서 얻어 낸 자료를 가지고 쓴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작품이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것은 분명 작가 수업에도 보탬이 됐고 공감을 얻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 ① 선생님은 작품을 쓰면서 언제부터 취재를 하시는지요?
- ② 선생님의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③ 선생님의 작품 중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은 어떤 것들인지요?
- ④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1)

- ① 선생님은 작품을 쓰면서 언제부터 취재를 하시는지요? (X)
 ◆ 선생님이 작품을 쓰면서 언제부터 취재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 ② 선생님의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X)
 ◆ 선생님의 신작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③ 선생님의 작품 중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은 어떤 것들인지요? (X)
 ◆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은 없다.

④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O)
 ◆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 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설이 아무리 허구적 장르라 해도 사실성에 근거해야 비로소 생동감과 개연성을 확보하기에 습작 시절부터 취재를 우선시켰지요.’로 보아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정답: ④

문 12.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2)

사람은 일곱 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온통 한 껍데기의 피고름이 큰 뼈 덩어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옷을 입을 줄도 알고 음탕한 욕심을 채울 줄도 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 성년 때는 싸우고 근심이 생기면 슬퍼한다. 궁하게 되면 못 하는 짓이 없고, 즐거우면 음란해진다.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 ①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 ② 빈부 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 ③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 ④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12)

- ①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X)

◆ 글의 일부 중 ‘근심이 생기면 슬퍼한다. 궁하게 되면 못 하는 짓이 없고, 즐거우면 음란해진다.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 글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② 빈부 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X)

◆ 글의 일부 중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 글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③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O)

◆ ‘사람은 일곱 자의 몸통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 ~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로 보아 전체 글을 포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함’이 이 글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 ④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X)

◆ ‘사람은 일곱 자의 몸통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로 보아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라 할 수 없다.

정답: ③

문 13.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3)

20대의 체험은 40대의 체험을 못 따르고, 40대의 체험은 70대의 체험을 못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莊子)도 소년(少年)은 대년(大年)을 못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백 년을 살 것인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인 것이다. 책이 너무 많아 일생을 읽어도 부족하다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열 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다. 박학다식이니 박람강기니 하여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 압박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은 우리의 총명을 혼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①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 ②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 ③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 ④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13)

①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O)

◆ ‘박학다식이니 박람강기니 하여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 잡박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은 우리의 총명을 혼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로 보아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②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X)

◆ ‘20대의 체험은 40대의 체험을 못 따르고, 40대의 체험은 70대의 체험을 못 당할 것이다.’로 보아 체험을 많이 한 것은 나와 있으나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없다.

③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O)

◆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인 것이다.’로 보아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④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한다. (O)

◆ ‘책이 너무 많아 일생을 읽어도 부족하다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열 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다.’로 보아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한다.

정답: ②

문 1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4)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철축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에서 -

<보 기>

- ㄱ. ㉓: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
 ㄴ. ㉔: '나'의 말을 '그'가 끝이듣지 않으려고 한다.
 ㄷ. ㉕: '그'가 '나'보다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14)

◆ 윤홍길의 「아홉 결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공간적 배경은 경기도 성남으로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간소외와 도시 빈민계층의 아픔을 그린 작품이다.

- ② ㄱ, ㄴ

ㄱ. ㉓: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 (O)

◆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에서 글 자체만 봐도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㉔: '나'의 말을 '그'가 끝이듣지 않으려고 한다.(O)

◆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에서 글 자체만 봐도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㉕: '그'가 '나'보다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X)

◆ ㉕는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나'가 대문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어 대문의 위치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낄까봐 자존심이 상해 한 말이다.

정답: ②

문 15.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5)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새삼 흥미롭게 다가온다. 단원 김홍도의 씨름 을 보자.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꼭꼭 숨어 버린 것처럼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선묘에 의지해 대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동양 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재감을 높이는 것은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해 온 동양 회화의 전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상의 원리로서 음양의 조화를 추구해 온 역사가 시사하듯 물리적인 빛과 그림자를 그리지는 않았어도 그 조화와 원리에 대한 관념은 화포에 진하게 물들어 있다. 사실의 묘사보다 정신의 표현을 중시한 까닭에 동양 회화에서 빛과 그림자는 이처럼 정신의 현상으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명암 표현이 어렴풋이 시도되는데, 이는 북경으로부터 명암법, 원근법 등에 기초한 서양 화법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왔기 때문이다. 김두량의 견도(犬圖), 이희영의 견도(犬圖) 등 일부 화인들의 그림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① 동양 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 ②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재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김홍도의 씨름 과 김두량의 견도 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 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15)

- ① 동양 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O)

◆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재감을 높이는 것은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해 온 동양 회화의 전통과 배치’로 보아 동양 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재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

◆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재감을 높이는’로 보아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재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X)

◆ ‘단원 김홍도의 씨름 을 보자.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꼭꼭 숨어 버린 것처럼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선묘에 의지해 대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 그림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명암 표현이 어렵듯이 시도되는데, 이는 북경으로부터 명암법, 원근법 등에 기초한 서양 화법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왔기 때문이다. 김두량의 견도(犬圖), 이희영의 견도(犬圖) 등 일부 화인들의 그림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로 보아 김홍도의 ‘씨름’은 명암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김두량의 ‘견도’는 명암법을 사용하여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두량의 ‘견도’만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함이 옳은 설명이다.

- ④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 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O)

◆ ‘선묘에 의지해 대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로 보아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 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6)

대조선국 건양 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 천지간에 사람 되어 진충보국 제일이니,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기를 높이 다세. 나라 도울 생각으로 시종여일 동심하세. 부녀 경대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할 것이라. 집을 각기 흥하려면 나라 먼저 보전하세. 우리나라 보전하기 자나 깨나 생각하세. 나라 위해 죽는 죽음 영광이지 원한 없네. 국태평 가안락은 사농공상 힘을 쓰세. 우리나라 흥하기를 비나이다 하나님께. 문명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 ①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
- ②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면서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군.
- ③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군.
- ④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군.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16)

◆ 최돈성의 「애국가」: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와 애국정신을 높이려는 글이다.

①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 (O)

◆ ‘~ 분녀 경대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할 것이라.’로 보아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경대(敬待): 공경(恭敬)하여 대접(待接)함.

②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면서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군. (X)

◆ ‘문명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로 보아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맞으나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 언행일치(言行一致):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

③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군. (X)

◆ ‘국태평 가안락은 사농공상 힘을 쓰세.’로 보아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은 맞으나 남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내용은 없다.

◆ 국태평(國太平) 가안락(家安樂): 국가 전체가 평안하고 집안은 편안하여 즐겁다.

④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군. (X)

◆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정답: ①

문 1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7)

팰렘시스트(palimpsest)란 원래 양피지 위에 글자가 여러 겹겹쳐서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귀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 있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쓰는 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쓴 글자 위로 새로 쓴 글자가 중첩되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팰렘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 조선 시대 한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부재하였다. 하지만 물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인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당시 주거들은 한강의 지류 하천을 따라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실개천 주변으로 주거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옆으로 사람과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변(水邊)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하천을 상하수도 시설처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시

에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 강북의 도로망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과도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지게 된 것이다.

- ① 팰렘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양피지를 재활용하면서 빚어진 현상을 말한다.
- ②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다.
- ③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 ④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팰렘시스트의 예이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17)

- ① 팰렘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양피지를 재활용하면서 빚어진 현상을 말한다. (O)

◆ ‘팰렘시스트(palimpsest)란 원래 양피지 위에 글자가 여러 겹겹쳐서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로 보아 팰렘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양피지를 재활용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②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다. (O)

◆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지게 된 것이다.’로 보아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X)

◆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로 보아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 아니라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고 해야 적절하다.

- ④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팰렘시스트의 예이다. (O)

◆ ‘건축에서는 이러한 팰렘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로 보아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팰렘시스트의 예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문 18.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8)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

- ① 수양산(首陽山) ㅼ 띠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호는 것 가 .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그 뉘 짜해 낫드 니.
- ②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들 도 다 온다.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ㄹ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 ③ 내 언제 무신(無信)호야 님을 언제 속엿관디
월침삼경(月沈三更)에 온 쫓지 전혀 업다.
추풍(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낸들 어이호리 오.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ㅣ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 (客)이 눈물계워 호노 라.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18)

◆ 김영랑의 「독을 차고」: 1939년 11월 『문장』에 발표된 시로, 내면으로는 순수의 마음을 지키며 불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김영랑: 시인(1903~1950). 본명은 윤식(允植). <시 문학> 동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잘 다듬어진 언어로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서정시를 발표하여 순수 서정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시집에 <영랑 시집>, <영랑 시선(詩選)> 따위가 있다.

① 수양산(首陽山) ㅅ 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호노라. <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호는 것 가. < 굶주려 죽을진들 고사리까지 먹어야 하겠는가? >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짜해 낫드 니. < 비록 푸성귀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
서 낫느냐? >

◆ 성삼문의 시조로 사육신의 절개를 노래함

◆ 성삼문: 조선 세종 때의 문신(1418~1456).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세조 2
년(1456)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처형되었다. 저서에 ≪성근보집(成謹甫
集)≫이 있다.

②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랴. < 짚 방석 내지 마라 낙엽에는 못 앉으랴 >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들 도 다 온다. < 술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ㄹ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 아야,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하지 말고
내여라 >

◆ 한호의 시조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노래함

③ 내 언제 무신(無信)하야 님을 언제 속엿관디 < 내가 언제 믿음 없이 임을 속였기에 >
월침삼경(月沈三更)에 온 쫓지 전혀 업다. < 달도 기운 깊은 밤에 임이 오려는 기척이 전혀 없
네, >

추풍(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난들 어이하리 오. <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님 소리 난들 어이 하
리오, >

◆ 황진이 시조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함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ㅣ로다. <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정
해진 순서가 있으니 만월대(고려의 궁궐터)도 가을 풀이 가득하구나, >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 오백 년의 고려 역사가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겨 있으니 >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호노라. < 석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눈물겨워 하는구
나, >

◆ 원천성의 시조로 고려 왕조의 멸망을 슬퍼함

정답: ①

문 19.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19)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언어학의 ㉠공리이다. 그리고 그 결합이 ㉡자
의적이라는 점 또한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그러나 음성 상징어로 총칭되는 의성어와 의
태어는 여기에서 예외로 간주되곤 한다. 즉 의성어와 의태어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연관
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① ㉠公理

② ㉡自意的

③ ㉢常識

④ ㉣緣關性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19)

① ㉠共理 (X) → 公理(공리) < 共(한가지 공) / 公(공평할 공) >

1) 공리(공리): 공(공평할 공) 理(다스릴 리(이))

a)의미: 일반 사람과 사회에서 두루 통하는 진리나 도리.

◆ ‘일반 사람과 사회에서 두루 통하는 진리나 도리’를 의미하는 ‘公理(공리)’는 ‘公(공평할 공) 理(다스릴 리)’를 쓰는데, ‘公(공평할 공)’ 그 자체를 쓴다.

☺영보이 암기tip) 언어학자는 **공평한**(公: 공평할 공) 마음을 가지고 언어학의 公理(공리)를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cf. ‘共理’는 없는 한자어이다. < 共(한가지 공) >

② ㉡自意的 (X) → 恣意的(자의적) < 自(스스로 자) / 恣(마음대로 자) >

1)恣意的(자의적): 恣(마음대로 자) 意(뜻 의) 的(과녁 적)

a)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또는 그런 것.

◆ ‘恣意的(자의적)’은 ‘恣(마음대로 자) 意(뜻 의) 的(과녁 적)’을 쓰는데, ‘恣(마음대로 자)’는 ‘心(마음 심)’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언어는 **마음**(心: 마음 심)을 담아 恣意的(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아, 그래서 언어의 특성 중 자의성이 있구나..

< 자의성(恣意性):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특성. >

③ ㉢常識(상식) (O)

1)常識(상식): 常(땀땀할 상/항상 상) 識(알 식, 적을 지, 깃발 치)

a)의미: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 ‘常識(상식)’은 ‘常(항상 상) 識(알 식)’을 쓰는데, ‘常(항상 상)’에는 ‘巾(수건 건)’이 들어가고 ‘識(알 식)’에는 ‘言(말씀 언)’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젖은 **수건**(巾: 수건 건)을 말려서 세탁기에 넣으라고 **말씀**(言: 말씀 언)하시는 어머니는 常識(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영철아~ 너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젖은 수건 세탁기에 그냥 넣기 말라고 했잖아!

④ ㉣緣關性 (X) → 聯關性(연관성) < 緣(인연 연) / 聯(연이을 연) >

1)聯關性(연관성): 聯(연이을 연(련)) 關(관계할 관, 당길 완) 性(성품 성)

a)의미: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

◆ ‘聯關性(연관성)’은 ‘聯(연이을 연(련))’을 쓰는데, ‘耳(귀 이)’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수영을 자주하는 것과 **귀**(耳: 귀 이)에 염증이 생긴 것은 어느 정도 聯關性(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 음파~ 음파~ 나 수영 끝나고 얘기하자.

정답: ③

문 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9국가직 7급 가책형 문20)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렇지만 빠른 변화와 복합적인 세계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킨 것이 적시에 지식을 제공해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집단 지성 시스템이다. 이는 인간의 두뇌, 지식 정보 시스템 등의 개체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을 얻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 결정자들은 미래 학자에게서 단순히 전망 보고서나 브리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장기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논의 과정이야말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부 지도자 의사 결정 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①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미래학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③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원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집단 지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2019국가직7 가책형 문20)

①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O)

◆ ‘그렇지만 빠른 변화와 복합적인 세계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로 보아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미래학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X)

◆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 결정자들은 미래 학자에게서 단순히 전망 보고서나 브리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장기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논의 과정이야말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부 지도자 의사 결정 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로 보아 미래 학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려 장기적 관점의 논의 를 위해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이다.

③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예측 능력을 개 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O)

◆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로 보아 정부와 기업의 의 사 결정자들은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원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집단 지 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O)

◆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로 보아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원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집단 지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 영보이 저서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2019년 8월 말 판매 예정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고사성어 편” < 2019년 8월 말 판매 예정 >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2019년 8월 말 판매 예정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20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20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